

초등학교 도덕과 권리교육 내용 분석

이 언 주
(부산동원초등학교 교사)

《 요 약 》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인간이 마땅히 향유하고 행사해야 할 '권리'에 관한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권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이 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도덕 교과서 및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한 권리교육 방법의 실제 교수·학습 활동상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을 통한 권리교육은 그 내용 구성 및 방법에 있어 온전한 권리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재구성하여 활용함과 차후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권리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주제어 : 권리교육, 자유주의, 도덕과 교육

I. 서론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도덕과 교육과정, 1998, p. 29).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근본적 취지 아래,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위와 같다면, 도덕과는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자격으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향유하고

행사하기 위한 권리교육을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교과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아동들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누리고, 지키며 실천해야 할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 ‘권리 존중’의 내용을 다양한 권리교육 방법을 통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도덕과 교과서 및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 교사용 지도서에 그러한 교육과정 내용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실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온전한 권리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편찬·활용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권리교육 내용이 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온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권리의 성격에 맞는 권리교육으로서 학습 방법상의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현행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권리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권리의 속성이 왜곡된 측면은 없는가, 그리고 이에 따른 교수·학습상의 오류가능성은 없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권리교육 내용의 분석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권리의 성격과 도덕과 교육에서 권리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일이다. 둘째,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및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 교사용 지도서에 실린 권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셋째, 권리의 성격과 권리교육의 원리에 비추어 도덕과에서의 권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해 보는 일이다.

Ⅱ. ‘권리’와 도덕과 교육

1. ‘권리’의 성격

가. ‘권리’와 인간 존엄성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권리교육의 내용과 방법 분석에 앞서 권리에 관한 제반 개념적인 문제를 개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권리’와 유사하게 쓰이는 ‘인권’의 용어를 살펴보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인권’의 의미를 규정한바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는 인간 존엄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11). ‘인권’은 ‘인간이 지니는 권리’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인권’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주로 사용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적인 의미도 포함한다(김정래, 2002, p. 20). 최근 들어 동물이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동물도 인간과 같이 모종의 권리를 갖는다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권’은 ‘동물권’(animal rights)에 대비되는 개념이다(김정래, 2002, p. 20).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인권’은 그 다의적인 성격과 총체적인 의미로 인하여 간혹 논점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반면, ‘권리’는 ‘인권’의 저항적 의미도 없고,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라 할지라도 이 글에서는 ‘권리교육’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인권교육’과 같이 정형화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인권’ 대신에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 인권 규약문에서 어떤 권리를 선언할 때 ‘모든 사람은’ 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의 주체됨을 선언하는 것이다. 즉 인권은 ‘타고난 권리’(natural right)로서 사람은 날 때부터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11). 그렇다면 ‘권리’는 명문화된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만이 권리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되기 이전에 성립할 수 있는 천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Wringer에 따르면, 권리는 힘(권력), 의무와의 상관(相關, correlatives), 청구행위(請求行爲, claim-action)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법리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힘’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며, 의무이행자만이 향유하는 상관 개념만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며, 청구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Wringer, 1981).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권리의 본질적 속성은 모종의 ‘부여받은 자격’(entitlement)이다(김정래, 2002, p. 9). 인간이 향유하고 행사하는 권리의 본질적 속성이 ‘부여받은 자격’이라고 이해되는 한, 권리를 부여받는 주체는 개인이다. 즉,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나 단체가 아닌 개인인 것이다.

나. 실정권과 도덕권

권리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 범주화가 가능한데, 권리를 실정법의 보장 여부에 따라 범주화하면 도덕권(moral rights)과 실정권(positive rights)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김정래, 2002, p. 30). 실정권과 도덕권의 구분은 권리의 근거가 실정법에 보장되어 있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명문화되어 있는 실정법에 특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면 실정권이며, 그렇지 않은 권리는 도덕권에 속한다.

법과 도덕을 견주어 보면,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도덕적 의무 중에서 지키지 않으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위한 규제를 위한 도덕적 최소한의 것임에 비해 도덕은 선의 실현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그 목적으로 하고 법의 기초이자 가장 보편적인 인간 행동의 규범이다. 법이 도덕에 비하여 타율적

강제력을 갖는 반면, 도덕이 법에 비하여 타율적 강제력은 갖지 않지만 법보다는 더 근원적인 규범으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도덕의 자율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법 이전의 보다 보편적인 규범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도덕권’은, 비록 실정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정권’에 앞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슬람, 아랍권 국가들의 여성들의 경우, 엄격한 이슬람법에 따라 차도르 및 부르카를 착용하고 8세 이상 소녀들의 교육이 금지되어 그들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가 억압된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용모 표현의 자유는 실정권에 앞서 도덕권의 범주에서 사람으로서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도덕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다.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자격으로서의 권리의 본래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도덕과 권리교육은 실정권 중심의 권리교육만이 아니라 여타의 실정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정권과 법에 앞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도덕권’의 권리 범주에서 도덕과 특성을 살린 권리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다. 자유권과 평등권

자유주의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불간섭의 원칙’을 중시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14).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함께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Dworkin은 자유가 평등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은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 없으며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책들에 의해서 향상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염수균 역, 2005, p. 298).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자유는 외적 강제가 심할 경우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방어적 차원의 소극적 자유에서 시작하여 적극적 자유로 나아간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간섭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속박에서도 벗어나 자기의 의사와 행위를 자율적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14).

또한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에 자유를 누릴 권리와 함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그리고 인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마땅히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자격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13). 질병, 무지, 기아 등은 인간이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결핍의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의롭게 만드는 공정한 기회 균등이 주어져야 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은 동등한 자유권의 원칙과 함께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될 때 더욱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약자를 위한 차등의 원칙은 실질적 평등을 향한 노력이며, 인간의 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수 민족, 무국적자, 여성, 아동, 노동자, 고아, 빈곤아, 부랑아, 외국인 근로자 등 약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만

듬으로써 인간답게 살도록 약자를 위한 복지적 배려를 해야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13).

도덕과 권리교육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권과 평등권의 내용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학생들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 및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학습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도덕과 교육내용으로서 권리교육

1948년에 공포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후,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성장하였다. 보편적 권리에 관한 인식의 성장은 기아, 난민, 전쟁고아 등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이들에 대한 재화의 공급(provision)으로부터 이들의 보호(protection)로 이어져왔으며, 1989년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된 이래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 인식은 ‘참여’(participation)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기구와 각 인권단체들은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개발이 이루어졌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5; 인권운동사랑방, 1999;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997).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교육의 학습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권리에 대해 사고하기 : 인권을 모르는 초보자에게 권리와 인권이 무엇이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의 항목들을 생각하고 알아가면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자각하기
2. 인권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 인권침해의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고, 그것을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기
3.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의식을 형성하기 : 인권유린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를 요구하고 지켜내겠다는 인권의식 갖기
4. 서로 연대하기 : 인권을 혼자 지켜내기가 어렵기에 인권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인간의 권리를 서로 연대하며 지켜내는 활동하기
5. 모임 만들기 : 연대하는 활동의 일시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을 항시적으로 보호하고 의사소통을 해가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는 공동체 만들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42~43)

권리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학교교육의 교과 영역은 주로 사회과이다. 도덕과에서는 사회과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도덕이 단순히 책임과 순종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도덕성의 발달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창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42).

궁극적으로 도덕과 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도덕성은 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적법성

너머에 있는 덕(德)의 의무이다(심성보, 2000, p. 148). 인권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법칙을 넘어 ‘남을 넘으로’ 보는 관계, 곧 사랑의 세계를 바라보고, 때로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양병수, 1997). 또한 우리는 도덕과 교육을 통하여 단순히 권리의 개인적 추구가 아니라 이타적 성향을 갖는 도덕성을 지향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공정해야 하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우선시하는 인륜성을 요청할 때 자신의 권리를 진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권리의 추구는 최종적으로 인륜성의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권리는 도덕적으로 칭송할 만한 높은 내적 가치나 덕목을 함유해야 한다(심성보, 2000, p. 148). 우리는 도덕과 교육을 통하여 인격 존중, 권리, 도덕적 의무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개인 윤리와 시민 윤리에서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보편적인 인간 행동의 규범을 익히고, 양심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실천하며 선(善)의 실현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만약 권리교육이 사회과 교육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인간이 향유하고 행사하는 실정권에 관한 권리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여타의 실정권과 실정법에 명기되지 않은 도덕권을 배타적으로 제외하거나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의 명문화된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교육만이 아닌, 그보다 상위이자 실정권에 앞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도덕권의 범주에서 도덕과 특성을 살린 권리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도덕과에서의 권리교육은 실정권에 앞서 보편적인 가치나 덕목을 함유한 도덕권의 범주에서 권리 문제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올바르게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Ⅲ.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권리교육

1. 도덕과 교육과정의 권리교육 내용

우선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문헌은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이하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이하 ‘길잡이’), 그리고 도덕과 교사용지도서(이하 ‘지도서’)이다.

‘도덕’ 교과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가 생활 영역별, 학년별로 체계적·연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개인 생활은 개인적 가치와 덕목인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등을 강조하였고, 가정·이웃·학교 생활은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 애향을 중시하였다. 사회생활은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의식 등을 주요하게 다루었고, 국가와 민족 생활은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등을 주요 가치와 덕목으로 설정하였다. 생활

영역별,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

생활 영역	주요 가치·덕목	교육과정 내용 요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개인생활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결, 위생, 정리 정돈 • 맡은 일에 책임 다하기 •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몸가짐 •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 시간을 아끼고 잘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한 생활 • 절제하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 • 생명을 소중히 하기
가정·이웃·학교생활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 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도와 우애 • 인사, 언어 예절 •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절과 양보 • 친척간의 예절 • 친구 사이의 믿음과 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 •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과 관용의 자세 • 학교, 교장의 발전과 협동
사회생활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교통질서 지키기 • 환경을 보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 공정한 생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권익 존중 • 공익 추구의 생활 • 민주적 절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 자연 보전과 애호
국가·민족생활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사랑 •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문화 유산 애호 •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 올바른 국제 문화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 출처 : 도덕과 교육과정, 1998, p. 30

<표 1>의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보면,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주요 가치·덕목에 ‘권리’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권리교육과 관련 있는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을 추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권리교육과 관련 있는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학년/ 학기	영역	제재	가치/ 덕목	교육과정 내용 요소	지도 요소의 계열 (학년/내용요소/제재명)
4학년/ 2학기	사회 생활	3.공정한 생활	정의	공정한 생활 태도 ◦ 공정한 생활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 ◦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공정한 또는 공정하지 못한 사례와 결과 ◦ 공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들 ◦ 자신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5학년〉 민주적 절차 준수 (서로 다른 주장)
5학년	사회 생활	5. 서로 존중하는 태도	타인 배려	타인의 권익 존중 ◦ 타인 권익을 존중하는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 ◦ 생활 주변에서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사례와 그 결과 ◦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바른 자세 ◦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합리적 해결 방안과 바른 태도	〈4학년〉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6학년〉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아름다운 사람들)
5학년	사회 생활	6. 나와 우리	공동체 의식	공익 추구의 생활 ◦ 공익을 추구하는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 ◦ 사익과 공익 간의 올바른 관계 ◦ 공익을 추구하는 생활의 여러 형태 ◦ 공익 실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실천 방안	〈4학년〉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6학년〉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아름다운 사람들)
5학년	사회 생활	7. 서로 다른 주장	정의	민주적 절차 준수 ◦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문제 해결의 의의와 중요성 ◦ 합리적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 ◦ 토론이나 회의할 때의 올바른 방법과 태도 ◦ 민주적 문제 해결의 방법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태도	〈4학년〉 공정한 생활 태도 (공정한 생활) 〈6학년〉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6학년	개인 생활	2.소중한 생명	생명 존중	생명을 소중히 하기 ◦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 ◦ 역사적 또는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생명 존중을 실천한 구체적 사례 및 본받을 점 ◦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구체적 실천 방안 ◦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과 실천 방안	〈3학년〉 환경을 보호하기 (자연은 내 친구) 〈10학년〉 공동체의식 문제와 환경 문제
6학년	사회 생활	5. 함께 지키자	준법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 현대 민주 사회에서의 법과 규칙의 목적, 기능 ◦ 법과 규칙을 잘 지켰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사례와 결과 ◦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칙, 약속들 ◦ 자신의 생활 반성과 법과 규칙을 잘 지키려는 다짐	〈4학년〉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8학년〉 현대 사회와 시민 윤리
6학년	사회 생활	6. 아름다운 사람들	타인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 타인의 입장 이해와 배려 및 봉사하는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 ◦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일들 ◦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봉사 활동과 실천 계획 ◦ 자기 생활의 반성과 타인에게 배려하고 봉사하려는 실천 의지	〈5학년〉 타인의 권익 존중 (서로 존중하는 태도) 〈8학년〉 현대 사회와 시민 윤리

※ 출처 : 4학년, 5학년, 6학년 교사용 지도서/지도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표 1>과 <표 2>에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을 권리교육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권리교육은 주로 4·5·6학년의 사회생활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3학년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들은 권리교육과의 관련성이 적다.

초등학교 도덕과 권리교육 내용은 사회생활에서의 정의의 실현과 타인 배려 및 타인의 권익과 공동체의 공익, 준법정신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한편,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생명권’을 다룬 6학년 2제재 ‘소중한 생명’을 제외하고는 개인 생활 영역에서의 권리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하 2절에서 직접적으로 ‘권익’을 명시하여 권리교육을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도덕과 5제재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분석한 후, IV장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과에서의 권리교육

내용 및 방법이 권리의 본질적 속성과 권리교육의 원리에 비추어 바람직하게 구성·조직되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5학년 도덕과 권리교육

가. 5학년 도덕과 권리교육 내용

5학년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5제재로 ‘서로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 제재는 사회생활 영역으로, 주요 가치 덕목은 ‘타인 배려’이며, 지도 요소는 ‘타인의 권익 존중’이다. 이 제재에서 의도하는 교육내용을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가) 타인의 권익 존중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지닌다.

- 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
- ② 생활 주변에서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사례와 그 결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내용 포함)
- ③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바른 자세
- ④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합리적 해결 방안과 바른 태도

(도덕과 교육과정, 1998, p. 38)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제재의 지도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익도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5학년 지도서, 2006, p. 148) 지도서에 나타난 ‘타인의 권익 존중’이라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 해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제재의 가치·덕목은 ‘타인 배려’이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함께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여기에서 평등은 누구나 소중한 인간이기에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나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한다.”(5학년 지도서, 2006, p. 148)

‘다른 사람의 권익 존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제재는 총 3차시에 걸쳐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차시별 학습 목표 및 주요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차시별 학습 목표 및 주요 교수·학습 활동

차시	학습 목표	교과서 쪽	교수·학습 활동
1	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안다. 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그 까닭을 안다.	도) 64~69 생) 5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은이의 하루’를 읽고 권익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과 의미 알아보기 - ‘인터넷과 다른 사람의 권익’을 통해 권익이 침해 받는 경우 알아보기
2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무시한 적이 없는지 반성해 본다.	도) 70~71 생) 6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는지 반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시간’을 읽고 회경이의 마음 느껴 보기 • 대안 활동(배려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시간
3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는 행동을 실천한다.	도) 72~75 생) 6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 실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 실천하기 - 타인의 권익을 존중한 친구에게 ‘바른 권익상’ 주기

※ 출처 : 5학년 교사용 지도서, 2006, p. 149(지도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제제는 타인의 권익 침해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차시별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1차시는 효은이의 권익 생각해 보기, 2차시는 회경이의 권익 생각해 보기의 내용에서 보여지듯, 권리교육 내용과 관련한 도덕적 문제를 자신이 당면한 문제 사태가 아닌 타인의 권리 문제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IV장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지만, 타인 중심의 권리 문제 제시는 아동들이 실제로 당면한 일상생활에서 온전하게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해 보는 활동이 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다.

나. 5학년 도덕과 권리교육 방법

앞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5학년 도덕 교과서 및 생활의 길잡이의 권리교육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는 도덕 교과서 및 생활의 길잡이에 나타난 권리교육 방법이다.

〈표 4〉 교수·학습 활동 방법 및 자료

차시활동주제			교과서·생활의 길잡이에 제시된 학습활동 및 탐구 문제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 모형
1	알아 보기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 다.	도덕 <효은이의 하루> 읽고 생각해 보기(교과서, 66~67) <인터넷과 다른 사람들의 권익> 읽고 생각해 보기(교과서, 68~69)	▪ 예화, 삽화 ▪ 신문기사	인지적 측면 중심의 교수·학습
			생각 ▪ 권익을 존중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적어 보기(길잡이, 59) ▪ 그림을 보고 내용을 적어보기(길잡이, 60) ▪ 권익에 관련된 낱말 맞추기 놀이하기(길잡이, 62~63)	▪ 그림 ▪ 퍼즐	
2	느끼고 반성 하기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는 지 반성 해 봅시다.	도덕 <체육 시간> 읽고 생각해 보기(교과서, 70~71)	▪ 예화, 삽화	정의적 측면 중심의 교수·학습 [대안활동] 배려모형
			생각 ▪ 만화를 읽고, 말주머니를 채워 적어보기(길잡이, 64~65) ▪ 만화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길잡이, 66) ▪ 그림을 보고, 고쳐야 할 점을 찾아 적어보기(길잡이, 67)	▪ 만화 ▪ 만화 ▪ 그림	
3	실천해 보기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해 봅시다.	도덕 【선택활동1】 역할극하기(교과서 72~73) 【선택활동2】 바른 권익상 뽑기(교과서 74) 【마음에 새겨 두시다】(교과서 75)	▪ 역할극대본 ▪ 삽화	행동적 측면 중심의 교수·학습
			생각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처럼> 읽고 생각하기 (길잡이, 68~69) ▪ 나의 생활기록표 (길잡이, 71).	▪ 예화, 삽화 ▪ 체크리스트	

※ 출처 : 5학년 지도서, 교과서, 길잡이, 2006/지도서, 교과서, 길잡이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5학년 도덕과 권리교육은 예화, 그림 자료, 역할놀이, 퍼즐, 체크리스트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권리교육 방법은 현행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교육과정의 권리교육이 주로 읽기 자료와 예화 및 삽화 자료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권리교육을 구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IV장에서 분석해 살펴보겠지만, 5학년 도덕과 권리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료 활용 시 문제가 제기되어진다. 한 가지 예로, 권선징악적 예화는 실생활에서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경험 없이 단순히 교화적인 방법으로 가치 덕목에 순응하도록 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Ⅳ. 초등학교 도덕과의 권리교육 내용 분석

1. 권리교육에서 ‘권리’의 범주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권리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6학년 2학기 사회과 1단원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의 세 번째 중단원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이다. 그러나 만약 권리교육이 사회과를 통하여 실정권에 관한 권리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여타의 실정법에 명기되지 않은 도덕권을 배타적으로 제외하거나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르게 ‘자유’와 ‘평등’, ‘권리’를 향유하고 바람직한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권리교육은 사회과와 더불어 도덕과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교과와 특성에 맞게 사회과는 실정권에 초점을 두어 권리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도덕과는 실정권에 앞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도덕권의 범주에서 도덕과 특성을 살린 권리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II장 1절에서 살펴본 ‘권리’의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권’의 범주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권리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그에 따른 도덕적 의무와 책임, 나아가 올바른 시민 의식, 그리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르는 데 포괄적인 권리교육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6학년 5제재 ‘함께 지키자’ 제재에서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타인과 공동체의 권리 및 이익과 대립되거나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강제 규준으로서의 법과 규칙을 학습한다(6학년 지도서, 2006. p. 180). 이 제재의 학습 시 실정권이 아닌 도덕권의 범주에서, 개인과 타인 및 공동체의 도덕적인 권리 문제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올바르게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또한 법과 도덕의 관계에 있어서 법은 도덕적 의무 중에서 지키지 않으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행위 규제를 위한 것으로 도덕적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과 도덕은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행동의 규범으로서 법의 기초이자 법보다 앞선 상위임을 바탕으로 하여 지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도덕과 권리교육은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실정권보다 앞선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도덕권’의 범주에서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자격으로서의 권리라는 본질적 속성에 바탕을 두고 권리교육 내용 및 방법이 구성되어야 한다.

2. ‘권익’과 ‘권리’의 용어상의 혼용 문제

5학년 도덕과 5제재의 교사용 지도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묻는 활동과 끝이어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것(5학년 지도서, 2006, pp. 151~152)과 같이 ‘권익’의 용어와 ‘권리’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는 ‘권익’에 관한 설명 대신 ‘권리’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권리와 의무’의 관계, ‘권리와 공공의 복지’에 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5학년 지도서, 2006, p. 154). 도덕 교과서 및 생활의 길잡이의 권리교육의 내용 구성도 지도서와 마찬가지로 ‘권익’ 용어와 ‘권리’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권익’과 ‘권리’의 용어 혼용은 이 제재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권리’의 용어 대신에 ‘권익’의 용어를 먼저 채택하여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모든 사람의 권익도 소중합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결국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해 줄 때, 나의 권리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5학년 교과서, 2006, p. 64).’라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또한 [선택활동1] 권익 존중 역할극(5학년 교과서, 2006, pp. 72~73)에서도 ‘권익’과 ‘권리’의 용어 혼용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 도덕 교과서 및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에서 ‘권익’과 ‘권리’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학습 내용상 두 용어가 지니는 의미 차이는 별로 없다.

‘권익’이란 용어는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으로 권리의 핵심적 속성에 있어서 ‘이익(interest) 또는 수혜(advantage)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그러나 앞서 II장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는 남에 대하여 특정한 지위나 직책이 가져다주는 어떤 힘을 행사하기에 앞서, 이미 어떤 것을 수혜하거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Wringe, 1981). 권리의 본질적 속성은 모종의 ‘부여받은 자격’(entitlement)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김정래, 2002, p. 9).

‘권익’은 ‘권리’에 관한 이익설을 전제로 할 때 도출되는 용어임에 비해 ‘권리’라는 용어가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현행 도덕과 권리교육은 ‘권리’와 ‘권익’ 용어의 혼용으로 인하여 특히 아동들의 개인 생활 및 가정·이웃·학교 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영역의 권리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권익’ 용어를 ‘권리’의 개념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뒤이은 6제재 ‘나와 우리’는 공익 추구의 생활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제재명 ‘나와 우리’가 풍기는 뉘앙스와는 달리 내용은 ‘나’의 이익과 관련한 권익 내용은 부재하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동들이 개인의 올바른 자유와 권리 존중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고 타인 및 공동체의 권리와 이익에 편향된 권리교육을 통하여 과연 올바른 권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3.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익 사이의 상관 개념 문제

5학년 5제재 도덕과 교과서의 매 제재의 끝 부분 ‘마음에 새겨 둥시다’에 나타나 있는 격언은 바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이다(5학년 교과서, 2006, p. 75). 이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5학년 도덕과 권리교육은 ‘자유’와 ‘권리’의 향유보다는 사회생활에서의 ‘평등’과 ‘타인’ 및 ‘공동체’의 ‘권익’을 강조하여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II장 2절에서 살펴본 이 제재의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해설을 살펴보다도, ‘나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5학년 지도서, 2006, p. 148)고 밝히고 있어 ‘평등’과 ‘타인의 권익’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과 권리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권익과 꼭 대응시키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설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타인의 권익 중심은 교과서의 제재 도입 시 명시되어 있는 글에서도 나타난다. 5제재 도입 시 명시되어 있는 ‘권익’에 관한 내용인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해 줄 때, 나의 권리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5학년 교과서, 2006, p. 64)에서 보더라도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익을 상관 개념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익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말 그대로 순수한 목적으로서의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라는 식의 논리는 심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앞서 II장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는 ‘힘’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며, 의무이행자만이 향유하는 상관 개념만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며, 청구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Wringe, 1981). 또한 Dworkin에 의하면 자유가 평등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은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 없다(염수균 역, 2005, p. 298).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지도 요소의 해설에서처럼 ‘나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식의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익 상관 개념화는 권리의 본래적인 속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간의 자유를 평등에 종속시킬 수 있다.

결국,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권리교육 내용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과 권리교육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활 영역 전반에 있어서 모종의 부여받은 자격으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4. 권리 주체의 문제

Ⅲ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과 권리교육 내용이 평등과 타인의 권익 및 공동체의 공익 중심으로 계열화되어 있음은 도덕과 권리교육은 권리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있어 권리의 본질적 속성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

5학년 5제재 ‘서로 존중하는 태도’의 3차시 선택 활동인 ‘바른 권익상’은 학급에서 친구들의 권익을 가장 존중해 주는 아동을 찾아 칭찬해 주고, 다른 학생들도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5학년 지도서, p. 162).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와 유사하게 교수·학습 활동을 실제로 전개한다고 할 때, 투표나 추천을 통하여 바른 권익상으로 뽑힌 학생이 어깨띠를 매고 평소에 다른 사람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상자로 뽑힌 학생의 권익을 위한 실천 활동은 정의와 평등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학급 공동체가 권리 주체로 자리하는 아래 단지 다른 사람의 권익 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에 그칠 수 있으며, 아동의 자유로운 권리 향유가 저지될 수 있다. 바른 권익상은 학급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권리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학급이라는 공동체가 되어 권리 주체로서 ‘개인’의 의미가 훼손되는 패러독스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따뜻하고 친근해야 할 학급이 공동체라는 권위로 말미암아 개인적 자유가 억압될 수 있고 냉소적인 학급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어 결국, 행복하고 즐거운 학급에서 생활해야 할 학생 개개인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향유되지 못할 수 있다.

5. 권리교육 내용상 드러난 문제

Ⅲ장 1절의 <표 1>의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들을 살펴 볼 때, 도덕과에서 ‘권리’라는 용어는 인식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권리교육이 나타나지 않음은 도덕과 교육과정을 통한 권리교육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현행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개인 생활 영역에서의 권리교육은 6학년 2제재 ‘소중한 생명’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6학년 2제재 ‘소중한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로서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생명을 유지할 권리로써 기초생활 즉, 빈곤, 질병, 전쟁에 의해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돕고 그들이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라는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을 바탕으로 한 권리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구성에 있어서 ‘권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Ⅲ장 1절의 <표 2>에서 권리교육과 관련되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계열을 분석해 보는데, 도덕과 교육과정은 개인 생활 및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에서 개개인이 자유와 권

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실제적인 권리교육이 소홀히 된 채, 평등과 타인의 권익 및 공동체의 공익을 강조한 권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권과 같이 아동이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에서의 ‘권리’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의 권익 보호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권리교육이 될 수 없다.

초등학교 도덕과 권리교육은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타인 및 공동체의 권익 중심의 권리교육만이 아니라 ‘도덕권’의 범주에서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국가·민족 생활 영역 등 아동의 생활 영역 전반에 있어 체계적인 권리교육 계열성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등 초등학생의 밀접한 생활 영역에서의 권리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구체적이고도 아동의 경험과 밀접한 상황에서 권리 문제 사태를 이해하고 도덕적 판단을 연습하고 직접 참여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또한 ‘도덕권’의 범주에서 볼 때, 도덕과의 다른 가치·덕목의 학습에서도 권리교육과의 관련성이 있을시 이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권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5학년 3제재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6학년 3제재 ‘너그러운 마음’ 제재의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로서의 용서와 관용, 사랑, 그리고 경애의 덕목은 인간의 권리 추구가 최종적으로 덕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질 수 있다. 아울러 ‘평화 통일’ 관련 제재의 지도 시 북한 주민들의 권리 문제를 생각해 보고 도덕적으로 이해해 보며, 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

6. 권리교육 방법상 드러난 문제

Ⅲ장의 2절에서 살펴본 5학년 도덕과 권리교육에 있어서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권리 문제 제시와 권선징악적 예화를 통한 가치학습은 그 방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가. 타인 중심의 권리 문제 사태 제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거나 그를 공감해 보려는 경험은 Piaget의 도덕성 발달이론에서 볼 때, 1단계의 강제·타율도덕성(heteronomous morality)을 넘어서 2단계의 협동·자율도덕성(autonomous morality)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경험이라 볼 수 있다.

5학년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예화 자료인 ‘효은이의 하루(5학년 교과서, 2006, p. 66)’와 ‘체육 시간(5학년 교과서, 2006, p. 70)’은 예화를 읽고 학생들이 효은이와 희경이의 입장이 되어 감정을 공감해 보도록 이끌고 있다. 그러나 예화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활동이다. 또한 실제 도덕과 교수·학습 장면에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와 같은 탐구 문제가 주어질 때 학생들은 예화 속 이야기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찾기 어려워한다. 교과서 및 보조 교과서에 제시되는 예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진다.

첫째, 자신과 관련된 권리 문제에 관한 학습 경험이 부재하여 자신이 처한 일상생활에서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문제를 분석하고 공감해 보도록 함은 타인이 처한 권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의 권리 문제와 관련짓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공감해 보는 활동은 결국 '내 문제', '내 권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야기 속의 가상 인물인 효은이와 희경이의 권리 문제로만 그칠 수 있다.

둘째, 생명권 문제를 다룬 6학년 2제재 '소중한 생명'에서의 전형적인 역사적 인물의 예화 및 보편적인 동화를 통한 권리교육 방법은 최근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및 왕따와 같은 권리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다소 현실감이 떨어져 자칫 피상적인 권리교육에 그칠 수 있다.

II장 3절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교육의 학습단계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사고하기'부터 시작되어짐과 같이, 도덕과 권리교육은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예화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우선 자신이 실제 당면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권리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게 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존중하듯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생활 영역을 넓혀 가며 체계적인 권리교육을 실시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도덕과 권리교육 방법은 타인의 권리 문제를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해 보는 활동에 앞서 우선 실제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당면하는 자신의 권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도덕적 사태를 제시하여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점차적으로 권리 문제에 접근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권선징악의 교화적 권리교육 방법

5학년 5제재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예화(5학년 지도서, 2006, pp. 150~153)는 나만 살기 위해 혼자 간 사람은 죽었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을 도운 사람은 살아났다는 점에서 권선징악적 문제 사태를 극단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아 모두 물에 빠지게 된 두 마리의 염소 이야기(5학년 길잡이, 2006, p. 66) 역시도 서로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두 마리의 염소' 예화는 Piaget의 도덕성 발달이론에서 보자면, 10

세 정도까지의 아동에게 해당하는 1단계 강제도덕성(morality of constraint) 수준의 이야기라 볼 수 있다. 평균 만 11세인 5학년 학생들에게 참고로 제시되는 이 이야기들은 도덕적 문제 사태에 직면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을 연습하여 높은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자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 준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점을 교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도덕과 권리교육 방법으로써 예화를 제시할 경우에는 권선징악의 교화적 가치 순응 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학년 학생의 사고와 도덕성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도 보다 높은 도덕성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예화를 제시하여 도덕적 가치 판단을 연습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권리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권리교육 자료의 표현상 드러난 문제

교과서 및 보조 교과서에 제시되는 언어 및 그림 자료는 학생들이 그것을 통하여 도덕적인 문제 사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규범을 학습하고 도덕적 판단을 연습하는 데 중심적인 자료로 제시되어진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권리교육 내용에 제시된 언어 자료 중에는 다소 아동들에게 친근하지 못하거나 과격한 용어들이 있다. 5학년 5제재 권익 존중 역할극 장면에서 ‘힘이 지배하는 동물 사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5학년 교과서, 2006, p. 73), 생활의 길잡이에 제시된 낱말 맞추기에서의 ‘갈봄’, ‘우두머리’, ‘수령’과 같은 용어(5학년 길잡이, 2006, p. 63), 생활의 길잡이에 제시된 말주머니 완성하기 활동에서의 친구 간에 다투는 장면에서 “어, 이 똥보가!”, “멍청이 주제에!”, “어쭈!”(5학년 길잡이, 2006, p. 64), 생활의 길잡이 체크리스트 활동 부분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와 같은 용어 및 문장은 아동에게 친근하지 못하고 다소 과격하여 아동들에게 제시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용어라 보여진다.

또한 그림 자료에 있어서 ‘바른 권익상’이라는 어깨띠를 둘러 맨 모습(5학년 길잡이, 2006, p. 74)은 아동들에게 친근하지 못한 장면일 수 있고, 염소가 결국 무시무시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말 장면(5학년 길잡이, 2006, p. 66)은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이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아동들에게 다소 충격적이다.

이와 같은 언어 자료 및 그림 자료에서 아동들은 과격한 어조와 용어를 잠재적으로 학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쓸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적인 권리의식을 지닐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되는 그림 자료는 즐겁고 친근한 학급 분위기와 친구 사이에 배려하는 따뜻한 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공헌하기보다는 과격하거나 냉소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언어 자료 및 그림 자료는 좀 더 초등학교생들에게 친근하게 표현되어 ‘권리’에 관한 긍정적인 학습자료로 제시되어짐이 요구된다.

V. 결론

지금까지 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권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초등학교 권리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도덕과 교육과정은 평등과 타인 권익 중심의 권리교육보다 포괄적인 권리교육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도덕과 권리교육은 ‘도덕권’(moral right)의 범주에서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자격으로서의 권리의 본질적 속성에 따른 권리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 존중’의 가치 덕목을 도덕과의 내용 요소로 함께 구성하여 도덕과 권리교육 내용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조화롭고 올바르게 향유·행사하는 활동을 연습해 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도덕과 권리교육 내용은 아동의 생활 영역 전반에서 권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III장 1절, 2절과 IV장 5절에서 분석한 결과로 볼 때, 도덕과 권리교육은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타인 및 공동체의 ‘권익’ 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등 아동의 실제 생활 영역에서의 ‘권리’ 문제를 밀접하게 다루어야 한다. 실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왕따, 아동 성폭력과 같은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향유하기 위한 권리교육은 타인 및 공동체의 권익 중심의 권리교육 못지않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다.

셋째, IV장의 4절과 5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의 권리교육 내용 및 권리교육 교수·학습 활동은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본질적으로 국가나 공동체와 같은 단체가 아닌 ‘개인’이라는 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IV장의 5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초등학교 도덕과 권리교육은 해당 학년 아동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권리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생각 키우기’부터 체계적인 학습 단계로써 계열성 있게 조직해야 한다.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개인과 타인 및 공동체의 권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도덕적 판단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덕과 권리교육 내용은 ‘자유’와 ‘평등’ 및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조화롭게 추구되는 가운데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만큼 존중할 수 있고, 타인 및 공동체의 권리와 이익이 자신의 권리 문제와 상충되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그에 대하여 자신의 최선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초등학교 도덕과 권리교육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권리 의식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 및 방법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에게 친근한 학교 생활 영역에서 학급에서의 권리 문제 사태, 학교 폭력, 왕따 문제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블로그,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인한 또래들 간의 개인 정보 유출 및 비방에 관한 문제와 같이 아동의 실생활 및 경험에 밀접한 내용을 구성하여 ‘권리’에 관한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서로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 올바르게 해결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리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치 갈등 모형, 역할극, 토론 활동과 같이 활동 중심, 문제 중심, 참여 중심의 다양한 권리교육 방법을 통하여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교육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학습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과서 및 보조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진 권리교육 내용 및 방법을 실제 교수·학습 활동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도 경험적인 사례를 토대로 보완·재구성하여 보다 온전한 권리교육이 구현되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리’는 사회과에서의 주요 내용이고 ‘타인 배려’는 도덕과의 주요 가치라는 분리된 생각에서 벗어나, 권리교육은 권리의 본질적 속성과 교과 특성을 살린 가운데 전인적 인간 형성의 차원에서 총체적이고도 통합적으로 구현되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권’에 따른 도덕과 권리교육을 통하여 아동이 천부적으로 부여받는 권리의 주체인 한 인간으로서,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 삶을 능동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모종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일체의 도덕적 판단을 연습하고 직접 참여하며 그에 따른 최선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의미 있고 행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8). **도덕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5). **도덕 4-2**.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5). **도덕 교사용지도서 4-2**.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5). **생활의 길잡이 4-2**.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6). **도덕 5**.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6). **도덕 6**.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6). **도덕 교사용지도서 5**.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6). **도덕 교사용지도서 6**.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6). **생활의 길잡이 5**.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6). **생활의 길잡이 6**.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구정화(2004). 아동의 ‘인권’ 개념형성에 비추어 본 초등 사회과 인권 내용 적합성. **사회과 교육, 25**, 65-84.
- 김남선(1998).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김왕근(1997). 시민성의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덕목과 합리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래(2005).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권리교육 내용 분석. **초등교육연구, 18**(2), 363-385.
- 김정환(1997). **전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김진(1995). 도덕발달의 철학과 담론 윤리학. **철학연구, 54**. 대한철학회.
- 남궁달화(1996). **도덕교육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남궁달화(1997). 인성교육 이렇게 하자. **교육평론, 6월호**.
- 박병기·심성보 외(1999). **아동인격교육론**. 서울: 인간사랑.
- 박병기·추병환(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 설기문(1997).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심성보(2000). **도덕교육의 담론**. 서울: 학지사.
- 양병수(1997). **녹색윤리**. 서울: 서광사.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염수균 역(2005). **자유주의적 평등**. 서울: 한길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5). **관용: 평화의 시작 -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교수 · 학생 지침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서울: 오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편(1995).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1999). **인권교육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서울: 참여연대.

Amnesty International Education for Freedom(1994). 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 이용교 · 이희길 역(1996). **인권교육의 기법**.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Franklin, B. (1995). "The Case for Children's Rights", in: his (ed.),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London: Routledge, 3-22.

Wringe, C. A. (1981). *Children's Right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논문접수 : 2006년 4월 13일 / 수정본 접수 : 2006년 5월 15일 / 게재 승인 : 2006년 5월 24일

ABSTRACT

The Analysis of Primary Moral Education on the Right Education

Eon-Ju Lee

(Teacher, DongWon Elementary School, Busan)

The primary moral education on the right education has its fundamental background on the liberal democratic society. And the recognition on the human rights has come together with moral one.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ontents and the descriptive method of the right education which is presented in the textbook of morality and the academic curriculum of students. In this paper, Authors showed the right education belongs to primary moral education level, from which the problem concerned arises. And author tried to show that right education should be examined in the light of liberal democracy and individualistic tone.

Key Words : right education, liberalism, moral education